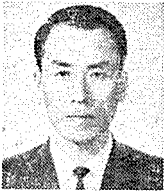


기생충 박멸은 이렇게 하자



김 동 찬

이제 우리나라에서 회충구충사업을 시작한지도 근 10년이 가까웁니다. 그간 기생충박멸협회가 주관하여 전국의 학생들에게 집단투약을 년 2회씩 매년 거듭 실시하여온데 힘입어 회충감염율은 이들 학생들에게서 볼때 상당히 저하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은 바람직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생각해보면 매해 그토록 구충약을 거듭해서 먹어야 할만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한번 놀라게 됩니다. 이는 기생충을 박멸하는 문제가 그처럼 어려운 일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편으로는 이들 기생충을 박멸하려는 의욕만큼 과연 현재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적절한가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겠읍니다. 우리는 그간의 사업을 통하여 현재와 같이 감염상태가 낮아지고 있다는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는지요. 한 농촌국민학교 학생의 회충 감염율이 지난날에 70%선을 가르켰는데 여러해의 집단투약으로 오늘 현재는 40%선에 이르렀읍니다. 분명히 70%와 40%에는 현저한 차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환경에서 집단투약을 1년 내지 2년간 중단한 후에 검사를 하여본다면 그때는 다시 감염율이 급속히 원상태 가까이 증가되어 있음

을 알게 될것입니다. 이는 깨진 독에 물을 부어온 격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터진곳을 때워서 막지 않을때 독에 담은 물은 시간이 가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도시의 독은 금이 적게갔고 농촌의 독은 금이 많이 갔으며 더러는 크게 더져 있습니다. 금이 간 부위도 가지각색입니다. 우리는 터진 독이 지만 급한대로 물을 담기 위해서 그대로 써왔습니다. 육심껏 채우려 하였습니다.마는 물은 가득차지 않았고 시간이 가면 다시 물높이가 낮아지곤 합니다. 그러나 집단구충사업의 확실한 실시는 개개인이 가진 감염충체를 구제함으로써 기생충질환을 치료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재감염의 집단적 예방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는 기생충 박멸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조치의 하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우선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퇴치사업을 집단투약에만 의존하여 왔습니다. 집단 투약사업만 하더라도 아직도 미흡하여 특히 농촌의 일반 주민에게는 투약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업은 우리 농촌의 특이한 정실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깨진 독에 물을 자주 붓지 않고도

언제나 주어진 양대로 차있게 하려면 터진 곳을 때워 물이 새지 않게 봉해야 하겠습니다. 즉 충난의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재감염을 막는 것이 사업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충난의 환경오염은 인분을 밭에 주는 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이들에게 인분을 비료로 쓰지 말도록 이야기하고 또는 지역에 따라 금지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인습을 통해서 작물 재배에 이로움을 체험해온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지도와 대안없이 그것도 짧은 기간에 생활인습을 변경시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효과의 증대를 위한 획기적이고도 근본적 대책으로 현장되는 것이 변소개량사업입니다. 이는 깨진독을 때우는 작업입니다. 특히 농촌가옥의 변소구조를 변이 변조내에 저류된후 수거될 단계에는 충난들이 모두 살남되게끔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변이 비록 다시 밭에 돌려진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기생충난이 토양과 채소등에 오염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살남기능을 발휘하는 변소구조는 전면적현장에 앞서 우리농촌실정에 맞는몇가지의 타당하고 경제적인

모델을 선정하여 수년간의 시범평가가 사업을 실시함이 바람직합니다. 농촌의 변소개량사업은 그 추진방법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며 바로 인식되면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환영받을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소개량사업은 전농촌이 완성했을 때 그결과는 엄청나게 큰 효과를 갖어다 줄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는 오래지 않아 모두가 기생충난 없는 채소로 변할 것이며 집단 구충사업의 성과는 안정되고 퇴치효과는 확실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나라의 기생충박멸 사업은 명실공히 본궤도에 오를 것입니다.

〈필자=국립보건연구원
기생충과장·이학박사〉

토막상식

담배의 해독

술의 해독도 크지만 담배의 해독도 적지 않게 크다.

근년의 연구에 의하면 흡연은 기관지 암 폐암, 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심한 흡연은 구강(口腔)을 자극하여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며 중추신경을 자극하여 두통 기타 여러가지 두뇌의 작용에 나쁜 영향을 준다.

고혈압증, 관상동맥 경화증, 협심증 등은 모두 심한 흡연으로 인하여 나쁜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존 홉킨스 대학의 레이본드는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많이 연구하였다.

수명을 통계로 보면 금연가에 비하여 흡연가는 90% 단명하다고 한다.

권연 1개에 5~6mg의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다.

치사량(致死量)은 50mg이다. 하루 15~50개를 피운다면 몸에 해가 될것은 물론이다.

천천히 피우는것이 몸에 좋다고 하며 또 앞머리에서 전체의 약 $\frac{1}{3}$ 만 빨고 그만 피우는 것이 좋다고 한다.

